

# 문대통령 “추경 협조를”... 박주선 “금호타이어 매각 관심을”

## 靑 4당대표와 영수회담... 홍준표 수해현장 방문 불참 순방 성과 공유... 탈원전·FTA·최저임금 등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바른정당 이해훈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 오찬 회동을 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 4당 대표와의 첫 대면이었던 이날 회동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성과 뿐 아니라 대북정책, 사드배치, 한·미 FTA, 탈원전 정책, 최저임금 인상, 전자권 문제 등 국정 주요 현안이 논의됐다. 여당을 제외한 야 3당대표는 주요 현안에 대해 적지않게 이견을 나타냈지만, 정당 대표들을 초청해 정상외교 성과와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하는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높게

평가했다. 이날 회동은 오전 11시30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상춘재 앞뜰에서 여·야 대표들을 직접 영접했으며, 오찬에 앞서 여·야 대표들과 함께 상춘재 뒤뜰을 거닐며 답소를 나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참석하지 않고 청주 수해지역을 찾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경내 전통한옥인 상춘재에서 여야 4당 대표들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한·미 정상회담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과를 공유했다. 정상회담과 관련, 문 대통령은 정당 대표들에게 “촛불혁명으로 민주적인 정권교체가 이뤄진 한국의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한미정상, G20정상회담에서 상당히 존중

을 받았고 또 그것이 이번 정상 외교 성공의 밑거름이 됐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여소야대 상황에서의 국정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진솔하게 털어놓으며 야당 대표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5당 체제와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아주 많다. 그럴수록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한다면 좀 더 공감대가 많아지고 협치도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 개편 부분은 대체로 합의가 됐다고 들어서 다행스럽지만, 추경은 아직도 걸림돌이 남아있는 것 같다”고 한 뒤 “정부로서는 열심히 해보고 싶은 욕심에서 추경을 만든 것이고, 한편으로는 대선 때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한 것이어서 어느 정도 타협이 되면 서로 100%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처리를 해주

시면 저희가 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야당 대표들은 대통령의 경청하려는 태도와 높은 국정 이해도를 높게 평가하면서 도 쓴소리와 이견을 아끼지 않았다. 정당 대표들의 우려는 ‘인사 5대원칙 위배 논란’, ‘대북정책’, ‘탈원전 정책’, ‘사드 배치’, ‘반부패협의체 구성’ 등에 쏠렸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반부패협의체 구성과 관련, 감사원, 국정원, 검찰 등 중립과 독립이 요청되는 기관이 참여하는 것은 정치보복 내지는 야당 갈등이기, 코드사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바른정당 이해훈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전자권을 조기전환 하거나 임기 내 전환 한다는 무기한 마감을 가지고, 조급한 마음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가 기정사실화 된 것에 대해 우려의 뜻을 전하면서, 5·24조치(대북제재 조치) 해제와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선 등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 대표들의 우려와 비판에 대해 경청하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입장을 소상히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탈원전 정책 관련해서는 “원전정책 밀어붙이기가 아니라 하시는데, 오히려 정반대다”며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한 제 공약은 전면 중단이었지만, 내가 공약했다 해서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해 공론조사라는 민주적 절차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게 찬반양론이 있을 텐데 산적하고, 건강한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은 본래

70분간으로 예정됐지만 이보다 50분 늘어난 2시간 동안 이어져 오후 1시30분 정리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9일 만인 지난 5월 19일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한 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을 상춘재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바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박 비대위원장이 “호남경제가 지금 어려운 원인 중에는 금호타이어 매각문제와 군산조선소의 사실상 폐쇄문제가 있다. 대통령께서도 관심표명을 했지 않느냐”고 묻자, “금호타이어 문제는 ‘고용이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지금 인수계약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인 것은 지금 밝히기 어렵기 때문에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김형호기자 jkpark@



‘우클릭’ 한국당號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재선 국회의원 연석 회의에서 잠시 생각해 잠겨 있다. /연철뉴스

## 친홍·친박에 ‘보수’ 덧칠한 한국당 혁신위

### 류석춘 위원장 10명 인선... 박 탄핵 반대 인사 전면 포진

자유한국당이 19일 혁신위원 인선을 완료했다.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명의 혁신위원 명단을 발표한 뒤 첫 회의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혁신위원으로는 학계에서 김광래 가톨릭관동대 경영학과 교수,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성호 고려대 미디어학부 강사,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가 포함됐다. 법조계에서는 이우승, 황성욱 변호사가 혁신위원으로 활동

한다. 시민사회 쪽에서는 최해법 사회민주주의연대 사무처장과 20대인 여명 한국대학생포럼 6기 회장이 이름을 올렸고, 이육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혁신위 대변인을 겸하기로 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도 혁신위원으로 활동한다. 이번 혁신위원 인선은 보수적 색채가 강한 인사들을 주로 하되 중도보수와 진보성향의 혁신위원들도 일부 배치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한국당은 보수 정체성을 토대로

중도로의 외연 확장이 필요한 시점인데 보수적 인사의 비중이 지나치게 큰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일례로 황성욱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활동했고, 정규재TV의 한 코너를 진행하기도 했다. 여명·유동열·조성환 혁신위원은 “국정 교과서 폐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최저임금제 추진 등 문재인 정부가 국가안보와 자유시장 경제원칙에 역행하는 정책을 남발한다”며 지난날 발족한 가정 ‘자유민주시민회의’ 추진자에 이름을 올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박상기 “법무부 탈 검찰화·공수처 반드시 설치”

### 법무장관 취임

박상기 신임 법무부 장관은 19일 “핵심 국정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을 성실히 실천하겠다”면서 “개혁을 중도에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사에서 “행자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을 ‘우물 파는 일’에 비유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우물을 아무리 깊게 파더라도 샘을 만나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그만둔다면 결국 우물을 전혀 파지 않

은 것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이라면서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힘차게 달려 나갈 테니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개혁 방안으로 “법무부는 다양한 인적 구성원들이 각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운영에 영대야 한다”며 “법무부의 탈 검찰화”를 강조했다. 이어 “검사 중심의 조직과 업무수행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구성원이 적재적소에서 능력을 발휘할 때 법무부가 탈원전 정책의 지휘·감독뿐 아니라 교정·출입국·인권 등 다양한 법무행정을 보다 더 충실



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국민의 검찰상 확립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도 부단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 개혁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관련 법령의 제정과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

## ‘탈 원전’ 공방... 부동산 투기 의혹 집중 공세

### 백운규 산자부 장관·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개최하고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했다. 백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탈)원전’ 정책을 놓고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결정 과정, 전기요금 상승 등의 문제를 꼬집었고, 여당은 세계적인 탈원전 추세에 맞춘 시의적절한 정책이라며 적극 방어에 나섰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왜 이렇게 급하게 (원전) 건설 중단 결정을 했느냐”며 “구체적인 전기요금 인상 등의 로드

맵 없이 중단한 걸로 볼 수 있는데 동의 하느냐”고 따졌다.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방사능 위험 때문에 원전을 축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원전 발전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중단시키면 전력수급에 막대한 문제를 일으킨다”며 “전기요금에 인상되면 어떻게 할 것인냐”고 몰아붙였다. 이에 백 후보자는 “앞으로 5년간 전기요금 인상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반대로 여당 의원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옹호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훈 의원은 “미국은 원자력 발전 비중이 현재 20%인데 앞으로 11%까지 줄일 계획이고, 원전 전국인 프랑스도 현 비율보다 20% 더 줄이겠다고 한다”며 “우리도 이

러한 원전 관련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도덕성과 직무적격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는 방송통신 정책의 수장으로서 부적격”이라고 공격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했고, 여당 의원들은 “문제 없다”며 엄포에 나섰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서울 강서구에 살면서 지난 2000년 배우자 명의로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를 샀고, 2008년 9월 해당 아파트로 전입 신고를 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재건축이 되면 들어가서 살려고 아파트를 구입했다. 투기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부동산  
중개법인**

#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

### 치평동 중심상가

일반물건

토지 191평  
건물 770평

매매가 53억

### 【법원 경매/공매】

토 지	일 반 물 건
▶담양군 담양읍 삼다리 준공업지역 개발촉진지구 토지 523평 <b>감정가 311,000,000</b> <b>최저가 311,000,000</b>	▶북구 운암동 중흥아파트인근 수익형빌라 토지 110평 건물 124평 <b>매매가 520,000,000</b>
▶나주 봉황면 황룡리 생산관리지역 과수원 반암마을인근 토지 3251평 <b>감정가 270,000,000</b> <b>최저가 216,000,000</b>	▶담양군 담양읍 로터리 중심상가 대지 144평 건물 2층 <b>매매가 11억</b>
▶신안군 중도면 방축리 계획관리지역 큰도로점 해안가 토지 1200평 <b>감정가 103,000,000</b> <b>최저가 103,000,000</b>	▶서구 중심상가 4층건물 현재 상업중 토지 133평 건물면적 90평 <b>매매가 23억</b>
	▶서구 풍암동 중심상가 근린시설 토지 400평 건물면적 100평 <b>매매가 17억</b>
	▶서구 치평동 근린시설 현재 상업중 토지 120평 건물 614평 <b>매매가 38억</b>
	▶서구 치평동 소각장인근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지 377평 타입중 가능 <b>매매가 17억</b>
	▶서구 마북동 도시지역 도시매도공사 뒤편 대지 508평 건물 302평 <b>매매가 38억</b> 조정가능
	▶광산구 비아동 아파트자리 토지 약 2000평 <b>매매가 평당 280만원</b>
	▶북구 신안동 추상복합상가 전남대정문인근 (1층, 2인) 건물 32평 <b>매매가 3억5천</b> (용자 2억5천, 보증금5천, 월143만원)
	▶담양군 대덕면 장산리 전원주택 최적지 유물관인근 토지 359평 <b>평당 40만원</b>
	▶담양군 남면 경산리 전원주택지 1종일반주거지역 무등산자락 토지 456평 <b>3억</b> 조정가능
	▶태양광가능 <b>평당 2만원</b> 강진 신전면 수양리 임야
	▶상무지구 중심상권 커피전문점 6층건물 1층 50평 <b>5천만원 월 300백 시설비 8천</b> 조정가능

---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